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 깨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 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강진군  
GANGJINCITY

## 황제의 부름을 받다

서주 무령군 소속의 장보고 부대는 산동반도 곳곳에서 치청절도사 이사도의 군사를 토벌했다. 군중소장 장보고가 전공을 세울 때마다 서주 병마사는 장보고에게 당 황제가 내린 은전과 하사주를 대신 전했다. 장보고 휘하의 정년도 황제의 하사주를 받았다. 두 사람은 군막의 방선반에 하사주 술병들을 올려놓았다.

어느새 장보고는 무령군 병마사에 버금가는 유명 장수가 되었다. 당 군관이나 군사들이 서로 장보고의 부대에 들어오려고 줄을 섰다. 어떤 군사는 절도사나 병마사를 통해 청탁하기도 했다. 장보고 부대는 어디서나 크고 작은 전공을 세웠고, 그때마다 당 황제가 포상을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장보고는 당 원화((元和) 12년(817)에 황제의 부름을 받아 장안으로 향했다. 물론 부장인 정년도 호위무사로 동행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2월 초였다. 장안에 이르려면 운하에서 배를 타고 낙양으로 내려갔다가, 낙양 관아에서 말을 빌려 서쪽으로 이틀 반쯤 달려야

했다. 운주는 아직 이사도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긴장을 풀지 말아야 했다. 적어도 낙양이 가까운 제음벌까지 가야만 안심할 수 있었다. 제음벌에는 당나라 황제의 직할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제음벌에 다다라서야 장보고는 정년과 노포(路鋪)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노포는 당나라 부대가 이동하는 곳마다 생기곤 했는데, 술과 음식을 팔고 하루 이틀쯤 묵어가는 방도 있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노포에서 하룻밤 쉬기로 했다. 장보고가 말했다.

“동상, 당나라 군사는 무사태평이네.”

“투구를 벗고 신발을 질질 끌고 땡기는 것을 본게 군기가 엉망이그만요.”

“이사도 군사를 막을라고 진을 치고 있는 모양인디 한심허네. 쫓쫓.”

당나라 군관이 검문하러 왔다가 장보고가 황제 명으로 된 문서를 보여주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공손하게 말했다.

“아이고, 장안으로 가시는 길이지구먼요.”

“황제 폐하 부름을 받아 가고 있소.”

정년이 일부러 고자세로 대답했다. 장보고와 정년은 당나라에 온 지

5년이 되었으므로 당인들과 간단한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었다. 군관이 몹시 부러워하며 말했다.

“저희들은 황실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는 미관말직의 군관인데 두 분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무술을 닦아서 전공을 세운다든 황제 폐하를 알현할 날이 있겠지요.”

군관이 노포 주인을 부르더니 주의를 주었다.

“주인장, 이 분들은 폐하를 알현하러 가시는 장수들이요. 불편한 점이 없게 하시오.”

“물론입죠. 어떤 분이 됐건 노포에 오시면 다 손님입죠. 군관님, 걱정 마십시오.”

주인이 말하고 있는 동안 군관은 등을 돌리고 노포를 나갔다. 노포 주인은 좀 전에 장보고와 정년을 건성으로 맞아들였던 자신의 태도를 사과했다.

“귀한 손님이신 줄 몰랐습죠. 제가 술을 한 잔 올리겠습니다요.”

“고맙소.”



장보고와 정년은 주인이 안내하는 대로 노포 안마당의 탁자로 갔다. 안마당에는 탁자 서너 개가 놓여 있었다. 손님들이 차와 술을 마시기 위해 놓인 탁자들이었다. 주인이 토기 술항아리를 가져왔다. 정년이 술항아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성님, 이거 탐진토기 아닌게라우?”

“맞네. 근디 어처케 여그까정 왔는지 모르겠네잉.”

무거운 동제(銅製) 술잔은 당나라에서 만든 것 같았다. 주인이 또 다시 오자 장보고가 물었다.

“이 술항아리는 신라에서 온 것 같으요.”

“맞습니다. 양주까지 가서 사온 것인데 귀한 손님에게만 내놓습죠.”

“왕청 형제가 판 항아리그만요.”

“그렇습죠.”

장보고와 정년은 제음벌 노포에서 탐진토기를 보고서는 몹시 좋아했다. 정년은 한눈에 탐진토기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탐진토기는 고온에서 구워지므로 기물에 달라붙은 재가 녹아서 회색유약을 바른 듯했고, 어떤 토기보다도 두께가 얇아서 가벼웠다. 그러므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것도 탐진토기의 특징이었다.

“동상 집 가마에서 온 것 아니여?”

“성님 그럴 리는 읊겼지라. 밀을 보든 알 것지라.”

정년이 향아리를 두 손으로 높이 들어 보았다. 그의 예상대로 정(鄭)자는 없었다. 그래도 탐진에서 온 것만은 분명했다. 장보고는 술을 조금 마셨는데도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장보고는 주인이 또 입가심하라며 우롱차를 가져오자 속주머니에서 노자(路資)로 챙겨온 은전 중에 한 닢을 탁자 위에 놓았다. 주인이 깜짝 놀랐다.

“군관님께서 잘 모시라고 했습죠. 그러니 은전을 받지 않겠습니다요.”

“이 탐진 토기향아리를 보니 마치 고향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반가워서 주는 것인데 거절하지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성님, 비상금으로 가지고 왔그만요.”

“은전이 으째서 똥그란지 아는가? 똥그란 모양은 굴러댕긴다는 것이제. 궁께 은전이란 이리저리 굴러댕기다가 넌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네.”

“성님다운 말썸이요.”

사실 장안으로 가는데 노자가 들어갈 일은 없었다. 운하에서 배를 타든,

관아나 치소에서 말을 빌리든 황제가 보낸 문서만 내밀면 다 해결할 수 있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항아리의 술을 다 비운 뒤, 우롱차로 입가심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곧장 코를 골았다.

닷새 후.



장보고와 정년은 장안 남문으로 향했다. 남문 앞에 이르자 수염을 기른 수문장이 다가와 말했다.

“무슨 일로 장안에 왔는가?”

“황제 폐하를 알현하러 왔지라우.”

정년의 말에 수문장이 코웃음을 쳤다.

“네 말을 내가 어찌 믿겠느냐?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남문을 통과할 수 없느니라.”

그때 장보고가 당 황제가 보낸 문서를 내밀었다. 문서를 받아든 수문장의 손이 떨렸다. 수문장은 문서를 보자마자 뒤에 있던 수문지기에게 소리쳤다.

“이 분들을 마차로 황실 객사까지 안내하라! 오늘은 신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구나!”

“신라에서 누가 왔는게라우?”

“사신들이 왔소. 당신도 사신 일행이 아니오?”

“아니그만요. 우리들은 서주 무령군에서 왔지라우.”

칼을 찬 남문 수문지기가 장보고와 정년을 안내했다. 두 사람은 수문지기가 끄는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는 덮개가 없었으므로 대로를 오가는 행인들을 다 볼 수 있었다. 행인들의 옷차림은 서주 사람들과 달리 화려했다. 비단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걸음걸이도 서주

사람들보다 빨랐다. 붉은 등을 단 가게들도 즐비했다. 무엇보다 성곽의 크기가 장보고와 정년을 압도했다. 시원하게 뚫린 대로 옆으로는 소로들이 바둑판의 줄처럼 직선으로 뻗어 있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어디다 눈을 줄지 모를 정도로 장안은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고,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윽고 수문지기의 마차가 기와집들 앞에서 멈추었다. 수문지기가 말했다.

“황제 폐하를 알현하려면 여기 객사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객사에는 시방 누가 계시오?”

“신라 사신이 머물고 있습니다. 신라 사신뿐만 아니라 각국의 사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하를 바로 뵐 수는 없는거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보름은 걸릴 것입니다.”

장보고와 정년은 보름 정도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수문지기의 말에 놀랐다. 그렇다고 서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병마사에게 정식으로 허락 받고 왔으므로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별 문제는 없었다. 장보고와 정년이 황제를 알현하는 것만으로도 무령군의 명예는 한껏 높아질 터였다. 수문지기가 객사 우두머리 관원을 데리고 왔다. 우두머리 관원을 수문지기는 접빈사라고 호칭했다.

“접빈사 나리, 서주에서 오셨는데 폐하께서 내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신라인들입니다.”

“그래요? 문서를 보여주세요.”

장보고가 접빈사에게 황제가 보낸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접빈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사도 반란군 지역을 무사히 지나쳐 왔구먼요. 숙소는 신라 사신들이 묵고 있는 객사를 함께 사용하시면 될 것이요. 황제 폐하를 알현하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장안을 구경하셔도 좋을 것이요.”

장보고와 정년은 접빈사를 따라 객사 앞의 당전으로 갔다. 당전의 용도는 양주와 자계에서 보았던 것과 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차와 술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나오는 것이 달랐다. 당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한쪽 출입문에서 반대쪽 출입까지 족히 오십 보는 되었다. 접빈사는 한 마디 더한 뒤 사라졌다.

“관원들을 곧 보낼 것이니 안내받으시오.”

“예, 감사합니다.”

장보고와 정년은 당전의 구석자리를 잡고 앉아 관원을 기다렸다.



그런데 관원은 유시(酉時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정년은 화가 나서 안절부절못했다. 곧 온다던 관원이 서너 식경 만에 얼굴을 비쳤기 때문이었다. 정년이 일어나 썩썩거리자 장보고가 그의 팔을 잡아 주저앉혔다.

“동상, 참아볼게. 시방 우리가 지달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네. 여그서 어처케 보름을 견뎌야 헐지 나는 고것이 깡깡해부네.”

두 사람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은 신라 말을 하는 역관이였다. 늙은 역관 관원이 말했다.

“여기서 저녁을 하시고 나면 숙소를 안내하겠습니다.”

“숙소는 멀리 있는게라우?”

“아닙니다. 접빈사 나리께서 신라 사신이 묵고 있는 곳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때였다. 신라 사신 일행이 우르르 당전으로 들어왔다. 사신 일행의 우두머리인 대사(大使)와 그를 보좌하는 부사(副使), 그리고 실무 책임자인 판관(判官)과 서류를 관장하는 녹사(綠事), 통역을 담당하는 통사(通事) 등이 먼저 자리를 잡자, 뒤이어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복인(卜人), 노잡이 방인(榜人), 배를 수리하는 선공(船工), 키를 조작하는

타사(柁師), 의원 등이 들어왔다. 사신을 호위해 왔던 궁사 50여 명은 맨 나중에 들어왔다. 사신 일행이 모두 의자에 앉자 당전 한쪽은 신라인들로 가득 찼다.



사신 일행과 반대편에 앉아 있던 장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사를 찾아갔다. 등받이가 높은 호상(胡床)에 앉은 사람이 대사일 것이었다. 대사는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장보고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지는 본래 탐진사람인데 서주 무령군 군중소장이그만요.”

“사실인가요? 신라인으로서 무령군 장수가 됐다니 나라의 큰 자랑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부르시어 왔그만요.”

“우리 사신들은 황제 폐하께 조공하려고 왔지만 군중소장께서는 황제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째 자랑이 아니겠십니까?”

부사가 말했다.

“대사께서는 왕자님이십니데이. 숙위로 왔십니더.”

소국의 왕자가 황제를 호위할 때 숙위(宿衛)란 직함을 받았다. 대사는 헌덕왕의 아들 김장림이었고, 조공사로서 대사가 신라에서 가지고 온 것은 불상이었다. 당헌종은 불교와 도교에 빠져 봉상(鳳翔)에 있던 법문사(法門寺)의 불사리를 장안으로 이운해서 공양하고 싶다고 자주 말해왔던 것이다. 부사가 다시 물었다.

“군중소장께서는 황제 폐하를 언제 알현합니까?”

“지들은 보름 이상 객사에서 지달려야 된다고 허그만요.”

“대사님과 지는 널 알현할 겁니다.”

장보고가 부사를 보고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이자 대사 김장림이 말했다.

“황제 폐하께 긴히 드릴 진언이 있십니까?”

장보고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뜻밖이었으므로 대사와 부사 모두 놀랐다.

“황제를 알현한다든 꼭 드릴 말씀이 있지라. 신라인을 노비로 삼는 일을 금하는 조칙을 내려주시도록 진언드리겠그만요.”

“오, 군중소장이야말로 신라인을 참으로 애끼는 분입니데이. 내 반다시 황제 폐하 앞에서 신라인 노비매매 금지를 진언하겠습니더.”

숙위로 온 대사 김장림이 약속했다. 장보고는 장안에 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 내심 흡족하기 그지없었다. 정년이 부사에게 물었다.

“신라에서 오시는데 고상은 안 허셨습니까요?”

“말도 마이소. 당항포에서 출발하자마자 악풍을 만나 표류했십데이. 배가 등주로 가지 못하고 명주까지 밀렸습니더.”

부사가 말한 악풍(惡風)이란 요동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인 삭풍이었다. 사신 일행을 태운 배가 거센 삭풍에 밀려 명주까지 표류했던 것이다.

“명주에서 장안으로는 어처케 왔는게라우?”

“절동(浙東)의 관리를 따라 배도 타고 말을 탔는데 두 달쯤 걸렸습니더.”

그래도 김장림 조공사 일행은 표류했다고는 하지만 운이 좋은 편이었다. 전년도 그러니까 헌덕왕 8년(816) 11월에 새해를 축하하러 하정사

(賀正使)로 떠난 대사 김사신 일행도 삭풍을 만나 등주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초주 염성(鹽城)에 표착했는데, 다섯 달 후인 다음해 3월에야 장안에 도착했던 것이다.

김장렴은 당전에서 저녁을 하고 난 뒤, 객사로 일찍 돌아와 황제가 주관하는 조회에 들어가서 무슨 말부터 진언해야 할지 통사에게 도움 받아 중얼중얼 반복했다. 장보고가 부탁한 말도 잊지 않으려고 했다.

“폐하, 지금 저는 유생들 중에서 학문이 낮은 자이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표(表)와 장(章)을 받들고 좋은 나라에 와서 조회하게 되었사옵니다. 무릇 진실로 간청이 있어 예에 맞게 저희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바를 진언드리고자 하옵니다. 그것은 저희 백성들이 노비로 팔려와 고통 받지 않는 일입니다. 폐하, 신라인 노비 매매를 금지하도록 조칙을 내려주시옵소서.”

통사는 김장렴의 틀린 당나라 발음을 고쳐주느라고 초저녁까지 애를 썼다. 마침내 김장렴은 자정 무렵에야 당헌종 앞에서 진언할 말을 다 외웠다. <계속>